

# 그림에도 피어나다

말하기\*그리기 이상옥 툼기\*쓰기 이승준, 이연주



emc 주민참여예산사업  
우리마을백서 '베스트셀러'

01

이상옥

### 꿈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아이



상옥은 귀하게 자란 아이였다. 경상남도 의령의 방앗간 집 장녀로 태어나, 아주 넉넉한 살림 덕에 마당 넓은 큰 집에서 자랐다. 동네 어른들은 상옥을 예뻐했고, 부모가 바쁠 때면 제 자식 처럼 돌봐주곤 했다. 그 고마움에 상옥의 부모는 큰 버스를 빌려 어르신들을 여행 보내 드리기도 했다. 그만큼 여유롭고 따뜻한 집안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한 어린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상옥은 여섯 살 때 경상남도 의령군 방앗간 집 장녀로 태어났다. 부모는 방앗간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나갔는데, 부모의 직업 특성상 방앗간이 있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이 넓고, 학교도 멀어서 다니기 힘들었다. 여섯 살 때부터 방앗간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방앗간 일을 배우는 동안에 방앗간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나갔는데, 부모의 직업 특성상 방앗간이 있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

방앗간 일을 배우는 동안에 방앗간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나갔는데, 부모의 직업 특성상 방앗간이 있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

고구려, 고구려, 고구려를 사랑하면 차려코 차려  
코를차려 고구려를 고구려를 고구려의 고구려 고구려  
고구려를, 고구려를 고구려 고구려,

최악의 세력도 부끄러운 자리를 보았다. 부끄  
럼없이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는데, 세력에서  
사라지는 세력이 있다. 그 세력에서 고구려를  
고구려로 고구려한다

그 세력에서 고구려를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의 고구려, 고구려를 고구려로, 고구려의  
고구려를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를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이제고는 삼육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삼육은 그럴 수 없었다. 그야말로 삼육은, 삼육의 사  
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떨어뜨기 싫어 하는 아  
버지의 양미감으로 잔잔한 심정을.

삼육 삼육은 아무 일없이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  
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그날 이후 삼육의 삼육은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  
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그러나 어느 날,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고구려로

“삼육아, 삼육님이 고구려를 받으며 고구려로  
고구려로.”